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머릿글 (사)인간의대지 이사장 이태복
1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사)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박영숙
커버스토리 동원그룹 회장 김재철

좁은 상자 안에서의 경쟁은 미래를 어렵게 할뿐
세계로 뻗어 가는 해양강국으로 거듭나야

회원칼럼 화가 장영주
지자체특강 작가 김홍신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C-TECH연구소 소장 김찬배
회원 & 연구원소식

LMI for Your Personal Leadership

송년의 밤 스케치

머니에세이 서울에셋투자자문 사장 이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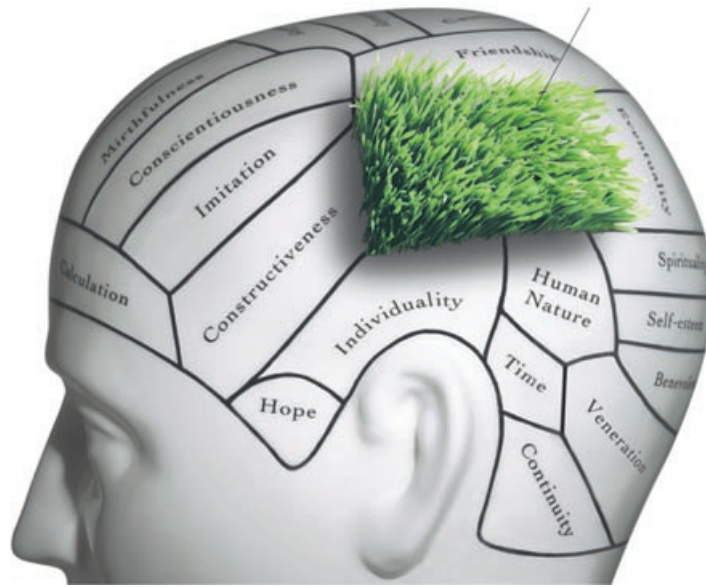
문운린칼럼

표지인물 김재철 회장 / 사진 오경근 원장

1

2008 January

등록 제83호 [비매출] 등록번호 : 서울 다 09006 발행인 : 2008년 1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건개발연구원(KHIHD)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8500(한) F.2203-1974 www.khdi.or.kr 디자인 : 팀장 이계경 pas@khdi.or.kr 인쇄 : (주)동명인쇄



GE의 새로운 친환경 전략, 에코메지네이션

에코메지네이션은 환경을 의미하는 Ecology의 eco와 GE의 슬로건인 'imagination at work(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의 Imagination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로 고객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E가 채택한 새로운 친환경 전략이다. 에코메지네이션은 고객의 발전, 나아가 사회의 공영을 위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GE의 약속을 담고 있다.

GE 에코메지네이션의 주요 약속

- 연구개발 투자 2배 증가
청정기술 연구개발비를 2004년 7억불 수준에서 2010년 15억불로 증대한다.
- 에코메지네이션 관련 제품을 매년 투입해 2010년 매출 200억불 달성
환경 성능을 대폭 향상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2004년의 100억불에서 2010년에는 200억불 이상으로 확대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까지 30~40%감축, 장기적으로 2012년의 절대 배출량을 2004년 배출량 대비 1%감축한 양을 목표로 한다.
- 목표의 진척 상황 공표
목표의 달성 상황을 매년 '사회공헌 보고서'를 통해 측정 가능하고 투명한 형태로 보고한다.

<http://ge.ecomagination.com>
www.ge.co.kr



GE imagination at work

원유시장의 미스터리

이태복 (사)인간의대지 이사장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태안해상국립공원과 천수만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안전불감증이 연안 어민들의 생계를 가로막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겠지만, 왜 그곳에 원유 운반선이 정박하고 있었는지도 의문 투성이다. 원유 얘기가 나온 김에 아예 이 미스터리도 살펴보자.

현재 국제원유값은 100달러 터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국제유가가 11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진작부터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돼 가는데도 당국은 국제유가 탓만 할 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냥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과 비명이 폭발일보직전이다.

우선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58%와 48% 수준의 휘발유와 경유에 붙어있는 세금을 20% 정도씩 인하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약 6조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정부의 방만한 낭비만 줄여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다.

둘째, 정유과정의 원가를 줄이는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국제유가 급등을 국내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채 폭리를 취해온 정유사들도 이제 정제과정의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촉매제만 국산제품으로 대체해도 상당한 기름값 인상요인이 줄어든다.

셋째, 당국은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원유자본의 폭리보장 조치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내 정유업체는 거의 전부 국제원유자본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다. 현대와 S-오일은 경영권 자체가 아랍의 원유자본이 갖고 있고, GS칼텍스는 쉘브론 측이 50%를, SK도 일정한 지분을 원유자본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석유시장은 국제원유자본의 황금시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소식만 있으면 바로 국내유가가 인상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정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원유시장의 상식은 이와 전혀 다르다. 원유도입은 대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되거나 선물, 스왑, 옵션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이 동원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본다면, 국제 기름값이 뛰니까 바로 국내 기름값이 뛰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야 국제유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원유도입가는 70달러 수준에서 도입됐거나 50달러짜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원유가 나오지 않는 일본의 기름값이 1,2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750원 수준을 지켜가고 있다. 한국만이 국민소득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기름값을 지불한다.

이 잘못된 메커니즘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정유사들의 원유도입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얼마짜리의 원유를 도입해 얼마의 정제비용, 유통 등 원가가 들어가서 국내소비자가격이 정해지는지 한국의 소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정보를 당국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4개 국내정유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원유도입자격을 개방하여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각지의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비축유만 손댈 게 아니라 원유도입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민간업체들이 원유도입시장에 참여하고 소규모의 정제시설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위기 시에 원유도입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그런 논리는 지금처럼 원유자본과 정제업체의 폭리구조를 보장해주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국제원유시장은 중동, 미국, 북유럽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로 확대됐었고, 주도권 싸움이 여전히 치열하다.

기름 소비를 줄이고 원자력과 태양, 절전 등 다양한 에너지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기존의 원유와 정유산업의 폭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유도입을 개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KEB**



이태복 이사장

1950년 생으로 국민대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를 마쳤으며, 순천향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도서출판 광인사를 설립해 양서보급에 앞장섰으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겸 편집실장을 거쳐 89년 주간노동자신문 창간, 96년 사회복지단체 '인간의대지'를 창설했다.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간의대지 및 점핑코리아연구소 이사장, 5대운동본부&5대거품빠기법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1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안내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년하례회

선진한국의 미래와 한국인의 초상

제1531회 1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2008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지 3년만의 정부수립은 우리 민족이 명실상부한 근대국가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산업화의 시대, 민주화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전 세계의 성장모델로 주목받을 만큼 빛나는 성공시대를 달려왔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희망의 해이기도 하다. 그 희망 안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다. 바로 선진한국의 미래비전을 실현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차기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챙겨야할 과제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분열과 갈등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한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정치권이 혁신을 전제로 비전과 철학을 세우고 전략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미래도 예측가능해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모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신년하례회 겸 연구회에서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원로학자로서 대한민국학술원을 이끌고 있는 김태길 회장을 초빙하여 한국인의 오늘을 짚어보고 선진한국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기업, 글로벌리제이션과

FTA 파고 어떻게 넘을까?

제1532회 1월 10일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2007년 4월, 장장 14개월에 걸친 협상 레이스 끝에 완성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벌써 시행 8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 사이의 국경 없는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변화를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작점일 뿐, 정부의 목표대로 지속적인 FTA가 추진될 경우 한미FTA는 EU, 중국, 인도,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더욱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결국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더욱 촉진할 것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기업이 세계화 경쟁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상국 및 기업 규모별 세부 대책 연구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기업가정신과 더불어 미국 기업과의 Win-Win 전략, 지식경쟁을 바탕으로 한 틈새시장 진출 등 한국기업의 글로벌화와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 협상의 타결로 인해 새로운 통상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개방으로 인한 피해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 체제를 갖추 수 있을 지 갈림길에서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초빙하여, 한국기업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기업들의 현명한 FTA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태길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서울대 철학과 졸업 | 美 존스홉킨스대 철학 박사 | 서울대 철학과 교수, 명예교수 | 한국 철학회 회장 | 수필문우회 회장 | 도산사상연구회 회장 |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 |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 | 우산육영회 이사장 | 심경문화재단 이사장 |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 상임공동대표

<상훈> 현대수필문학대상, 제32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제6회 인촌상 외
<저서>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며, 유교적 전통과 현대한국, 삶이란 무엇인가(수필집), 초대(수필집), 꿈이 있는 사색(수필집)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 美 위스콘신매디슨대 경제학 석·박사 | 세계은행 컨설턴트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부원장 |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교류처 처장,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극동도시가스 사외이사 | 산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상훈> 대통령비서실 표창, 대통령표창

건강 자신 있으십니까?

제1533회 1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건강의 올바른 정의는 무엇인가?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것인가? IQ는 100이하로 낮는데 '체격만 크고 튼튼하다' 하여 진정한 건강인이라 할 수 있을까?

폴록은 그래서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서적 건강, 지적 건강 및 감정적 건강이 고루 갖춰졌을 때 진정한 건강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하권의 박사는 건강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막상 일상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점에 착안해 '건강십진법'을 고안했다. 매일 한 번 이상 보람찬 일을, 열 번 이상 파안대소를, 백 글자 이상 쓰고 천 글자 이상 읽고, 1만보 이상 걷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8세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있다. 하지만 삶의 질로 평가하는 건강수명은 65세로 세계 51위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노후의 10년 이상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내게 되는 셈이다.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로비 또한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스포츠의학회 인정의 1호, 국내 스포츠의학의 개척자로 알려진 하권의 우리들병원 명예의료원장을 초빙하여 육체의 건강을 넘어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의 컨버전스

제1534회 1월 2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인간의 생활은 어디까지 진화할까? 산업구조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 안에서 인간의 기능을 대신한 다양한 로봇의 출현, 인간복제의 가능성, 모든 산업분야의 컨버전스 등 모든 생활방식들이 급격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덕분에 생활과 산업의 밸런스를 맞추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창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생활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국경을 넘은 시야를 가져야 하며, 지구의 환경까지도 생각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1979년에 설립된 썬크탱크 일본 생활과학연구소는 앞으로의 인간의 미래생활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과 환경을 전망해 생활이나 사회 본연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생활의 진화를 위한 다양한 전화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소비자의 시점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치한방지용 자판기변신형 차마, 여자무릎을 형상화한 베개 등 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는 방법들도 다양하다. 그것은 생활의 불편함에서 바로 상상력을 동원한 제품으로 이어져서 생활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콘노 유리 대표를 초빙하여 생활과학과 일본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총리부 산하 재단법인 2001 일본위원회 이사장으로서 기업이 국제교류사업을 맡고 있어 21세기의 세계가 만들어가야 할 모습과 새로운 사회질서, 그리고 사회의 진보와 국민생활의 향상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재미학 콘서트

- 재미와 엔터테인먼트와 펀 콘텐츠

제1535회 1월 31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행복이다. 실로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향유이며, 이를 누리는 것이 재미이다. 이 심리학적 정서인 행복을 어떻게 재미있게 누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본다.

21세기에는 경제력보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재미'에 대해 손대현 교수는 사회적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손 교수가 본격적으로 재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가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고 국민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을 때다.

경제와 재미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실 돈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재미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옹졸했었다. 재미와 여유를 갖지 못하면 경쟁력도 상상력도 창조력도 돌파하기 어렵다. 다행히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 '정보 공간에서 노는 인간 능력과 정보기술(IT)과 재미의 융합으로 블루오션이 펼쳐지고 있다.

재미있으면 '짱'이지만 재미없으면 '똥'일 뿐이다. 무릇 재미있는 콘텐츠만이 잘 팔리는 콘텐츠 전쟁시대다. 뻔한 상품은 더 이상 주목을 끌지 못하고, 펀(fun)해야 하는 상품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빠지게 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기 십상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손대현 한양대 교수를 초빙하여 지금까지 그의 인생 편력의 과정에서 깨우친 수많은 이야기들을 '재미학 콘서트'로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하권익
우리들병원 명예의료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 서울대 의학 석·박사 | 서울대 의과대 외래교수 |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 1~2대 회장 | 제15회 켈거리 동계 올림픽 한국팀 의무 |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회장 |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 대한골절학회 회장 | 제2~3대 삼성서울병원 원장 |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 을지대학병원 병원장 | 대한올림픽위원회 의무위원장 | 경원대 초빙교수

〈상훈〉 내무부장관표창, 근정포장, 동탑산업훈장 외
〈저서〉 건강 자신있습니까?(공저), 때론 치열하게 때론 나지막하게(공저), 자녀교육 이야기(공저) 외



콘노 유리
일본 생활과학연구소 대표

츠다주쿠대학 졸업 | 1969년 다이얼·서비스(주) 설립 | 1979년 (주)생활과학연구소 설립 | 뉴비즈니스협의회 이사, 부회장 | 뉴비즈니스협회연합회 부회장 | 미국 여성경영자 200명회(The Committee of 200) 첫 일본인 멤버 | 경제동우회 간사 | 도쿄상공회의소 의원 | (재)2001 일본위원회 이사장 | 도쿄가스(주) 사외이사 | 서던 크로스컨츄리클럽 이사장

〈상훈〉 세계의 우수 여성 기업가상



손대현
한양대 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졸업 | 스페인 마드리드국립관광대학 졸업 | 고려대 경영학 박사 | 美 미시건주립대 객원교수 |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최고엔터테인먼트과정 원장 | 한국관광학회 회장 | 서울시 관광진흥위원회 자문위원 | BK21 핵심사업단 관광지원평가 및 수용력 개발팀장 | 대통령 소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 Cittaslow Korea Network 위원장

〈상훈〉 삼성 '인재제일'지 추천 명강의 교수 선정, 한양대 백남학술상 수상
〈저서〉 한국문화의 매력과 관광이해, 문화를 비즈니스로 승화시킨 엔터테인먼트산업, 재미학 콘서트 외

제1529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2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변화로써 사고의 진화를 하라

미래사회의 10대 트렌드

박영숙 (사)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1982년 어느 날 영국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던 나는 정부로부터 미래회의에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때 처음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공무원들은 미래예측에 관한 교육이 필수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기획, 홍보 파트의 담당자는 미래예측 방법론을 공부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었다. 전 세계 50여개 국가가 정부 산하기구로 미래전략청이나 미래전략처를 설치하고 있으며, 미래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미래회의에 처음 참가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회의에 참가한 학자들의 황당한 발언들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럽연합(EU), 유로화,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은 한 나라가 될 수 없는 역사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예측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1차대전을 치렀던 독일과 어떻게 한 나라가 되겠는가? 또 6000~7000억원 하는 컴퓨터가 한국에는 한 대도 없었던 시절이라 카메라

폰, PC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컴퓨터의 파워는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80년대 지렁이의 두뇌이던 컴퓨터가 현재는 쥐의 머리만큼 똑똑해졌다. 그런데 2025년이면 한 사람의 인간만큼 똑똑해지고, 2050년이 되면 컴퓨터 한 대가 지구촌 인구의 머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리더가 없는 리더십 시대

시대의 변화속도는 미래를 향해 갈수록 빨라진다. 실제 농경시대는 6000~7000년, 산업시대는 200~250년, 정보화시대는 50년이 소요됐다. 5년, 10년 후면 후기정보화시대로 가게 된다. 시대에 따른 권력의 변화도 농경시대에는 권력이 종교에 있었고, 산업시대에는 국가가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정보화시대에는 권력이 기업으로 옮겨간다. 실제 핀란드에서는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노키아 사장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업이 막강한

시대이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지만 후기정보화시대에서는 개인이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1인 시위, 댓글 등이 상징적인 예이다.

심지어는 '리더가 없는 리더십(Leadership without leaders)'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과거에는 정보를 가진 중앙정보부(CIA)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가든 정보공개가 되어있고, 엄청난 정보가 공짜로 돌아다닌다. 결국 개개인도 모든 정보를 공유해 똑똑한 개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기업들에 있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농경시대에는 식량자원을 팔았고, 산업시대에는 기계를 팔았다. 그러나 지금의 정보화시대에는 정보서비스를 판다. 실제 MS, 구글, 이베이, 아마존 등의 기업은 정보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과거에 기계를 팔던 포드나 GM은 모두 합병되거나 규모가 줄었으며, 카네기는 아예 망해서 없어졌다.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남은 기업은 GE뿐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60년만에 수명을 다했다. 우리나라의 대우나 쌍용의 소멸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보에 의하면 60년의 대기업 평균수명이 35년으로 줄었다고 한다. 기업의 탄생과 소멸 주기가 더욱 짧아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후기정보화시대에서는 네트워크 상품이 주목받을 것이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호주정부에서는 '유튜브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홍보에 활용하라'고 할 정도이다.

부의 척도도 농경시대에는 땅이 많으면 부자였다가 산업시대에는 자본이 많으면 부자였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시대에는 접속이 많으면 부자이다. 그런데 후기정보화시대에는 '인구=국력'이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능력이 중요해진다. 2020년이면 중국인구가 19억명, 인도가 17억명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19억명의 정보처리능력과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의 정보처리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 경쟁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경 사라지고 세계정부 탄생

노르웨이 2030국가미래보고서는 노르웨이 16개 부처 중 15개 부처가 참여해 1년여에 걸쳐 만든 보고서이다. 노르웨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유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 세계는 어떤 질서로 움직일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세계인구는 65억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은 인구 예측 수치가 낮는데, 6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국가 수에 관한 내용이다. 1900년에는 전 세계에 56개 국가가 있었다. 2차대전 이전이 끝나면서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해 82개국으로 늘었다. 지금은 192개국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약 200개 국가가 있다. 그런

데 2030년이면 국가간의 국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국경은 사라지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경은 사라지고 있다. 종래의 전쟁은 국경을 넘어가 공격했지만 9.11테러는 공중을 공격했다. 그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100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기구는 현재 큰 기구들만 400~500개 정도인데, 2030년이면 8400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게 된다.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탄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기후문제, 물부족, 국제범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경제블록에 대한 예측이다. 아프리카동맹은 이미 3년 전에 출범했다. 남아메리카동맹, 중앙아메리카동맹도 있다. 미국에는 NAFTA가 있고, 아랍연맹과 ASEAN도 있다. 이렇게 앞으로는 대부분 몇 개의 경제블록을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느슨한 FTA로 하나의 경제블록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개념이 없어지고 경제블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과 TV는 사망했다

내가 미래예측을 하게 된 동기는 검색엔진 때문이다. 82년 처음 참가한 미래회의에서 그들은 미래에 컴퓨터가 손바닥만해지고, 개인이 하나씩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사람들이 네트워크상에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모으고 선별하고 뽑아서 공짜로 읽어볼 것이라고 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런데 92년도에 검색엔진이 등장했다. 사실 이들은 검색엔진이 나오기 전에 '솔팅머신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엉뚱한 소리에도 준비위원회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곧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매년 7월 말이면 전 세계의 각 분야 전문가 2000~3000명이 참여하는 세계미래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4년 전에는 앞으로 교과서를 이용해 가르치거나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8년 전에 '적시학습준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얻어지는 따끈따끈한 정보로 교육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만드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책은 프린트하는 날부터 과거의 정보가 되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인류는 태어나 불을 발명하면서 문명이 싹텄다고 말한다. 그 후 바퀴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며 발전해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불을 발명하고 문자를 발명하고 인터넷을 발명하고 나노를 발명했다'고 할 것이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신문과 TV는 사망했다고 이야기한다. 이제 사람들은 TV를 보지 않고 인터넷과 UCC를 보고 있다. 1인 매체로 가는 것

이다. 유튜브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모든 사람들의 견해를 볼 수 있다. 이제 방송이 아닌 '협송', 끼리끼리 방송을 하게 된다.

컴퓨터는 혁명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MIT미디어랩에서 만든 랩톱컴퓨터는 100볼에 불과하지만 성능에 있어서는 200만원짜리 삼성컴퓨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컴퓨터에 달

린 배터리를 몇 분간 돌려주면 바로 에너지가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요즘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13만원짜리이다. 유엔은 지금 이 컴퓨터를 아프리카 지역에 나눠주고 있다.

5년 전 미래회의에서는 삼성전자가 15년 안에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00볼짜리 랩톱이 2년 후에는 50볼로 내려가고, 더 나아가 공짜로 나눠주게 된다. 그 대신 컴퓨터를 켜면 광고가 뜨게 된다. 이렇듯 200만원과 13만원은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핸드폰 역시 컴퓨터와 핸드폰, TV가 결합된 제품이 나오고 있다. 가격 또한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TV 따로 핸드폰 따로 컴퓨터 따로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2029년이면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한다. 결국 인간은 열심히 할 일이 없어진다. 2030년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융합되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미래보고서를 쓰기 두려워한다. 그 이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은 급속도로 보편화

1800년대에는 미국의 농업인구가 90%였다. 1900년도에는 20%로 줄어들었고, 2000년도에 와서는 2%로 줄었다. 마찬가지로 제조업 인구가 1850년 경에 가장 높았다가 지금은 12%이다. 미국은 88%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는 1886년에 나온 이후 1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완전한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76년에 나온 전화도 완전한 보편화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PC나 인터넷은 급속하게 보편화돼서 앞으로 일직선상으로 올라간다. 앞으로 새로 나오게 되는 기술은 급속하게 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은 나노로 귀결된다. 또한 나노, 바이오 등 하나의 기술은 없으며, 모든 기술이 융합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계가 모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를 개발하고 뇌를 개발하는 산업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미래예측은 얼마나 맞을까? 사회예측은 틀릴 수 있어도 기술예측은 정확하다. 소닉 비행기와 하이퍼소닉 비행기를 보자. 소닉 비행기는 미국에서 영국까지 5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하이퍼소닉 비행기는 2시간만에 런던에 다녀올 수 있다. 오전에 런던에 갔다가 돌아와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

은 2020년이면 상용화가 가능하다. 현재 보잉, 버진 아틀란틱, 도요타 등이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IT는 2012년이면 더 이상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환경기술은 2010년부터 먹고살 것이 생기고 의료, 우주공학은 2012년부터 먹고살 것이 생긴다. 바이오, 유전자공학도 2015년부터 먹고살 게 생긴다. 자기부상열차는 2030년에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가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컨대 자기부상열차의 경제가치가 높다고 지금 투자한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예측은 인재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2006년 3월, IBM2020보고서에서는 '일류대 기피증'을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구조가 서비스산업 체제로 굳어지면서 일류대 출신은 손님을 쫓아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 감기가 걸리고 병에 걸리는 등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 회사가 자신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를 고용했더니 회사 의료비용이 31%나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코닥의 실패와 쉘사의 성공비결

중요한 것은 접속과 소통과 평등의 교훈이다. 코닥은 이를 무시했다가 88년 사망선고를 받았다. 사실 카메라장치가 디지털로 갈 것이란 점은 코닥이 가장 먼저 알았다. 그러나 코닥은 디지털카메라를 만든 회사 엔지니어의 의견을 무시해버렸다. 결국 소니, 캐논, 니콘, 후지기가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한 뒤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미래예측이 부족했던 것이다.

미국의 쉘사는 미래예측에 성공한 기업으로 불린다. 쉘사는 69년 미래예측연구소를 만들었다. 이후 1년간 연구 끝에 71년 당시 베럴당 1.19달러인 오일가격이 몇 년 후면 20~30볼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결과에 모두가 비웃었다.

하지만 쉘사의 경영진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대안으로 제시됐던 저

렵한 유전을 사 두었다. 그리고 정말 73년 미증유의 오일쇼크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결국 쉘은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해 이룸도 없던 기업에서 세계 3위의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대학 없어지고 평생교육 체제로

미래의 직업을 보면 없어지는 것이 많다. 필름현상소, 비디오가게는 없어진다. 노래방도 2~3년 후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스위스의 시계 회사 90%가 문을 닫았다. 백화점, 출판사, 정당, 학교도 없어진다.

호주정부에서는 15년 후면 우리가 은퇴할 때 40여개의 직장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6개월 일하고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서 또 일하는 식으로 간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인들은 은퇴할 때까지 7.8개의 직장을 거친다.

정치가 없어지고, 검찰, 경찰, 노조도 없어진다. 은행, 조폐청, 제조업도 사라질 것이다. 결혼도 25%만 하게돼 웨딩산업도 망한다. 2040년에는 일부일처제까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좋은 DNA를 가진 사람과는 생산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생활파트너와 살게 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쟈 세계의 50%가 나노, 바이오, 인포, 에코공학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이고, 세 번째는 테러 등으로부터의 신변보호를 위한 GPS, 감시공학, 두뇌공학이다. 네 번째는 노인 의료산업이고, 다섯 번째가 교육이다.

사람의 우뇌는 감성적, 창의적 사고를 관장하고, 좌뇌는 이성적 사고를 관장한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기계에 적용하면 시험도 필요 없게 된다. 또 인간은 말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컴퓨터가 대신 말해 준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제어해서 행동에 옮겨준다. 생각만으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은 모두 공짜가 된다. 이미 미국 정부가 99년부터 하고 있는데, MIT는 수년 전부터 100여개 대학과 함께 국제오픈코스웨어(OCW)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무료 대학통합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의 학년도 없어진다. 공개된 정보를 보는데 학년은 무의미해진다.

입학시험도 없어진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다. 책은 만드는 날부터 틀린 것이 된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인턴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없어질 것이다. 학생은 집에서 배우고, 스스로 배우고, 회사에서 배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사람의 교사가 아는 것보다 수십만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학기가 사라지고 24시간 365일 공부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현재의 대학은 망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얻기 위해 스스로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전기를 한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설치해줬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를 동안 겁이 나서 아무도 컴퓨터 앞에 가질 않았다. 그런데 2개월 후에는 모든 기능을 배워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컴퓨터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2~3개월 후에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영상으로 중계를 했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카메라를 부셔버렸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에는 한 명의 어른이나 선생도 없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6개월, 1년만에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아마 선생이 있었으면 10년도 더 걸렸을 것이다. 상상과 동기유발이 모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2305년 대한민국 소멸할 수도

백인인구가 1900년도에는 50%, 2000년에는 20%였다가 2050년에는 2%가 된다. 백인시대가 끝난다는 것이다. CIA2020보고서에 의하면 아이사인이 80%가 된다. 중국이 19억, 인도가 17억이고 미국은 늘어봐야 4억이다. 아시아의 인구는 56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305년에 소멸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은 미래예측을 하면서 한국을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질 나라, 물부족국가로 지목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인구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경시대, 산업시대에는 아이가 재산이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아이는 비용으로 바뀌었다.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최대의 출산장려운동이다. 아무리 돈을 쥐봤자 안 된다. 돈 많은 나라부터 애를 적게 낳는다.

CIA2007년, 유엔 2000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출산율이 1.28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08명이다. 두 명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고정인데 한 명을 낳기 때문에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부산에 가져든 군중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했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사진을 보냈더니 요즘 인구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사진을 올리고, 사진의 인간들이 지구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인종이라고 '한국의 부산 0.81명'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출산장려운동이 필요하다.

영국정부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에 노동력이 가장 짧은 나라가 한국이다. 유엔에서는 15세에서 59세를 청년노동으로 본다. 그런데 청년노동력이 플러스가 된 곳은 인도밖에 없다. 역시 가장 고령은 한국이다. 통계에 의하면 2305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5만7천명만 남게 된다. 남자가 2만7천명, 여자가 3만명이다. 이제부터라도 미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좁은 상자 안에서의 경쟁은 미래를 어렵게 할뿐 세계로 뻗어 가는 해양강국으로 거듭나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 지난 4월 엑스포실사단이 여수를 방문했다.



사진 오경근 원장

"우리나라는 세계화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향해 툭 튀어나온 반도로서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지가 되기 좋은 조건이죠.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양지향적이며 개방화된 무드를 조성해 유라시아 대륙의 큰 부두 역할을 해야 합니다. 3만m 상공에서 보면 동해와 서해가 한 눈에 보이는데, 좁은 상자 안에서 경쟁과 줄서기를 반복하는 것은 미래를 어렵게 할뿐입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집무실에 걸려있는 '거꾸로 세계지도'를 가리키며 던진 말이다. 그는 집무실에 거꾸로 된 세계지도를 걸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꾸로 세계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태평양을 향해있는 부두 형상을 하고 있다. 바다를 기반으로 사업을 일으킨 기업인다운 면모다.

김 회장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부산 수산대(현 부경대)에 진학했다. 강진 농고 3학년 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개척하는 것밖에 없다'는 담임교사의 말에 감명을 받고 서울대 농대 장학생으로 선발됐지만 진로를 수정한 것이다. 23세에 국내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남호'를 타고 3년 만에 선장이 됐다. 이 때 모은 1천만원을 자본으로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했다. 스스로 '바다가 인생의 고향이요, 큰 스승'이라고 할만큼 바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과시한다.

이와 함께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530일간의 유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해양강국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인재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김재철 회장을 만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인재관, 그리고 종합생활산업그룹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늦었지만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뛰셨는데요. 유치가 결정되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동안 사람들에게 박람회 유치성공에 항상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심 많은 긴장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경제규모, 외교력, 안정적인 개최능력 등 모든 면에서 경쟁국에 앞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전자 투표 후,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기뻐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00여일간 함께 고생했던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뜨거운 유치 열의를 보여주신 여수시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김재철 회장

1935년 생으로 부산수산대 어로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해 동원산업 회장, 동원엔터프라이즈 회장, 동원금융지주 회장, 동원그룹 회장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수산진흥회 회장,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06년까지 7년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 부경대 명예총장,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더욱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 모두의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 결정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원동력은 첫째로 정부와 재계, 국회, 시민 등 민관이 합심한 일사분란한 유치활동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한 유치활동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유치지원회의를 구성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 활동을 독려해주었죠. 그리고 현대, 삼성, LG, SK, GS칼텍스 등 재계의 폭넓은 해외 사업망을 통한 적극적 유치활동 및 지원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수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열의가 유치 성공에 큰 힘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주제의 시의성 및 안정적인 개최능력 등 유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는 모로코의 감성적 호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여수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세계박람회 의 이상·이념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 국제박람회기구(BIE)회원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외교능력을 통한 유치교섭활동입니다. 유치 지지 확보를 위해 회원국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한 만큼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유치 지지 교섭과 장관급 고위인사 사절단을 파견하여 회원국 표심을 적극 공략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가지는 의미를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큼니다. 총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9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획기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남해안 일대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보다 거시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는 그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으로 해양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최를 통하여 현재 세계 12위 수준의 해양력을 2016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리고 21세기 해양선진국가 및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국가경영전략이 포함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바다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삼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룹경영을 뒤로 할만큼 유치활동에 전념하셨는데요.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입니까.

유치과정에서 난감했던 것은 경쟁국인 모로코가 엑스포를 선진국만 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회교국가에서도 한번 해보게 해달라는 감성적 호소였습니다. 150여년에 걸쳐 100회 이상의 엑스포가 열렸는데 아

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만 열렸으니 이제는 아프리카에도 기회를 한번 달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남미에서도 한번 개최 하자는 감성적 호소는 많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른 경험이 있으니 엑스포도 잘 할 수 있다는 한국의 논리를 무색케 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왕국인 모로코는 왕이 직접 왕실외교를 함으로써 아직도 왕국으로 있는 나라에서는 왕의 명령으로 모로코 지사로 돌아선 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한편 BIE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을 가입시킴으로써 회원국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금년 상반기까지 98개국이던 BIE 회원국이 140개국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 점심시간까지 쪼개가며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가지며 대응 전략과 대책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와 재계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회원국들의 지지 이탈을 막고 입장 미정국 또는 유동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교섭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중요시 여겨야 해요. 유치활동 중 국가간 또는 부처간 맺었던 약속들의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여수선언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와 이행은 필수요건입니다.

둘째로 엑스포는 여수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행사라는 점입니다. 여수는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남해안 전체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겠죠. 또한 엑스포 시설은 반드시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 시설로서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중요합니다. 엑스포를 위한 기초적인 SOC 투자의 이행과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 세계 유수 업체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방정부의 의지, 그리고 쌍방간의 일사분란함만이 투자의 신뢰도를 높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이후 개발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번 유치활동은 회장님의 해양수산 분야 경험과도 문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20대 초반 원양어선을 탔던 것이 지금의 동원그룹을 탄생시켰는데요. 사업 초기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1969년 동원산업을 창립할 당시 제 나이 35세였습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이 창업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당시 30대에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우리나라 벤처기업 사업가 1호라고도 합니다.

고려원양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주변업계나 외국업체로부터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 독립해서 사업을 하지 않느냐'며 독자적인 회사를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 때 외국업체나 국내업체에 쌓았던 신용을 바탕으로 동원산업 창업을 구상하게 됐죠. 그렇게 69년 4월,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동원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국내외에 쌓아둔 신용 하나로 외국 차관 37만달러를 정부의 지불보증 없이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500톤급 연승선, 동원31호와 동원33호를 도입해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정상외 외화 결재방식'이라는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는데, 이는 외국으로부터 먼저 어선을 들여오고, 배 값은 나중에 고기를 잡아 갚겠다는 내용입니다. 외상으로 들여온 배를 밑천으로 설립된 동원산업의 탄생은 월등한 어로기술과 신뢰성으로 이루어진 실로 전무후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남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부회장은 입사 전 6개월 동안 원양어선을 타는 등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동원식 자녀교육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교육과 훈련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조직의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

환을 몸으로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남의 뒷자리에서 일하려면 강인한 단련이 필요하고, 최전선에서 또 가장 저변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이들인 김남구 부회장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6개월간 배를 타게 했어요. 멀리 베링해까지 나가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동원산업의 근간인 바다와 배를 배우도록 한 거죠. 91년 동원증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리로 입사해서 첫 부서도 여의도 본사가 아니라 지점으로 발령을 내어 지점과 채권영업, 기획실을 거치며 업력을 쌓도록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97년 경남 창원 참치통조림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시작해서 이후 동원산업 영업부 평사원으로 시내 백화점에 참치제품을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작은 일을 모르면 큰 일을 할 수 없는 법이죠.

저는 아버지께 어릴 적부터 항상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라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죠. 자기분수를 안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예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욕심 내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분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 싫지만 반드시 줘야 할 것이 '고생'입니다. 요즘 2, 3세 기업인들은 죽기살기로 뛰었던 창업자 세대와는 달리 여유가 있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오만과 나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에는 지름길과 아스팔트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직원들을 대하는 회장님의 인재상 또한 남다른 것 같습니다.

동원직원들에게 동원정신이 무엇인냐고 물어보면 모두 열성과 도전, 창조라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이러한 동원정신을 갖춘 사람이죠. 동원의 경영철학은 무대경영론과 범재경영론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무대경영론이란 기업을 하나의 무대라고 봤을 때, 오너는 무대를 제공한 사람일뿐이고 연출자는 경영자이고 연기자는 종업원이며 관객은 고객이라는 의미의 경영철학입니다. 경영자의 뛰어난 연출과 종업원들의 성실한 연기가 어우러져서 고객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경영자와 핵심간부들은 동원이라는 기업무대를 이끌어 가는 연출자로서 더욱 치밀하게 연출력을 가다듬어야 하고,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고의 연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이 무대경영론의 요지입니다.

범재경영론이란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여러 사람의 범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경영철학입니다. 이는 화합하지 않는 천재들의 집단보다는 화합하여 시너지를 창출시키는 범재들의 집단이 더 가치가 있다는 의미죠. 물론 범재경영론이라고 해서 천재가 필요없다는 말

은 아닙니다. 범제는 훈련 여하에 따라 천재가 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 되어 있는 거죠.

인재육성을 위한 사내 교육프로그램인 '목요세미나' 또한 회장님의 철학이 반영된 듯 합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목요세미나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정보공유를 통해 사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1974년 9월 26일, 첫 강연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579회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과 사내 간부가 강사로 참여하는데, 외부강사로는 지금까지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산악인 허영호씨,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 박노해 시인, 지승룡 민들레 영토 사장 등 다양한 명사들이 다녀가셨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유명인사는 거의 강의해주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강당 수용인원 문제와 본사 외 사업장 임직원들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강연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경영환경 개선의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기업인을 대표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 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실천 가능한 꿈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세계로 돌리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세계인이 되도록 교육시키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나라를 개방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화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향해 톱 튀어나온 반도로서 동북아의 해양물류중심지가 되기에 좋은 조건이죠. 또한 우리 국민들은 자질이 우수해 세계 어디를 가나 현지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좁은 한국땅에서 줄 잘 서서 골목대장 하려 하지 말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 큰 꿈을 이루도록 개방교육, 개방정책을 펴야 해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장관을 잘 골라 오래 쓰는 겁니다. 제 아무리 특출한 사람도 1년 남짓 장관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적어도 3년이나 5년쯤 장관직을 수행하게 해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돈 안 들이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

최근 아주택배를 인수하면서 그룹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2008년도 경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택배 인수는 동원그룹 물류사업 중 택배부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동원그룹도 이제 10여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생활산업그룹으로 내년도 매출 목표를 약 2조5천억원 정도도 잡고 있어요.

회사 경영의 목표는 이윤창출과 함께 고객을 만족시키고 가치를 실현



▶김재철 회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변하지 않는 계획이어야 하죠. 고객은 회사의 사업기반이며 동원그룹의 존재 근거입니다. 숫자뿐 아니라 고객에게 정도와 신뢰를 심어주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도록 2008년도도 정도경영을 해 나갈 겁니다.

동원그룹은 생활문화그룹인 만큼 고객들의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룹으로 커 나갈 겁니다. 그 일환으로 동원그룹의 주축인 식품사업과 관련해서는 '웰빙식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그 외의 사업도 고객의 참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제품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청년시절 바다를 누비던 그 열정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건강관리를 특별히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보다는 기회가 닿는 대로 골프나 등산을 하죠. 제가 키는 별로 크지 않지만 골프에서 비거리가 꽤 됩니다. 주변에서 장타 비결을 물어보면 '멀리 떨어진 원양 어선에서 잡은 참치를 먹어서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참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직 나이에 비해 무척 건강한 편입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2008년 33주년을 맞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産-學-官-政 협동의 기틀 마련과 기업인들의 경영 리더십 개발 등 인적자원 개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기관입니다. 연구원의 긴 역사와 지금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의 미래는 세계로 뻗어나가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좁은 상자 같은 국내에서의 경쟁과 출서기는 우리 미래를 어렵게 할뿐이에요. 우수한 우리의 인적자원을 다듬어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국제화 의식과 젊은이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해야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i.or.kr

현대미술을 접목해 업그레이드하기

장영주 화가



#1

현대미술을 장악한 미국의 손익계산서

백남준 선생께서는 자신이 뉴욕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유럽에서 활동하여 인정받아도 뉴욕에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뉴욕에서의 인정받음은 곧 세계적인 인정을 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뉴욕에는 세계 곳곳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려는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있다.

뉴욕 첼시가의 첫 느낌은 공장의 외관을 그대로 둔 채, 갤러리로 리모델링한 모습에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까지 느끼게 한다. 그러나 걸모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치열한 현대미술의 접전장이다.

영국의 유능한 아트 딜러 찰스 사치는 뉴욕의 모마미술관에서 영국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치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어줌으로써 뉴욕에 진출하게 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키워냈다. 독일의 콜렉터, 평론가들 또한 독일의 신진작가들을 미국의 여론에서 주목받게 하기 위해 분주하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현대미술가들을 세계적인 화가로 키우기 위해 단결하여 갤러리에 줄을 지어 작품을 매입하고 있다. 이미 명성을 얻은 독일의 화가 아셴 키퍼의 경우는 작품에서 독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표현되었다고 견제를 받기도 하고, 작품 가격을 인하하려는 미국의 화상들과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협상하여 다시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조국의 작가들을 세계적인 작가로 키우기 위해, 또 자국의 문화예술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예술 관계자들로 뉴욕은 늘 이렇게 시끄럽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 부럽기도 하고, 고아 같은 심정으로 다시 마음을 굳게 잡기도 하는데, 과연 미국이 언제부터 문화 예술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추상 표현주의 선택한 미국

미국은 경제적인 부는 이루었으나 역사적인 약함, 문화예술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구 소련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유럽의 모더니즘이 세계인의 마음을 잡고 있을 때, 미국은 단순한 부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최고의 나라를 꿈꾸었다.

이 때 미국의 독특한 평론가 클레멘테 그린버그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린버그는 아방가르드의 자율적인 태도가 특별한 문화예술을 창조 해낼 수 있으며, 자유로운 사회, 자유로운 사고가 곧 미국의 정체성이며, 자유스러운 내면의 세계를 작업하는 추상 표현주의가 그를 대표한다고 말한다.

이에 미국정부는 미국의 정치적 이념인 자유주의와 연계하여 작전에 들어간다. 이후 미국은 20여년간 정부, CIA, 언론, 자본을 통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인 잭슨 폴락, 드 쿠닝, 마크 로스코 등을 부상시키면서 미국을 현대미술의 최정상 자리에 올려놓았다.

이제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야유 받던 '돈만 많은 돼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최고의 나라 자리를 꿰찬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 방향하고 있던 미국 국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였고, 유럽에서의 문화적 열등감을 뛰어넘어 미국의 자유정신과 예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시장과 세계 문화예술의 시장까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쇠락의 길 걷던 공업도시 윈스터와 현대미술의 접목

독일 북부에 있는 작은 탄광과 공업도시였던 윈스터에 도착했을 때는 십씨 30도가 넘는 땀방이 내리쬐는 7월의 오후였다. 그 뜨거운 날씨에



▶ 반고흐, 램브란트의 집 윈스터 조각

도 윈스터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윈스터 프로젝트를 보러 오고 모여들고 있었다.

윈스터는 구 시가지와 상가지역, 주택가, 숲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그마한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요즈음은 그 지형에 맞게 조각, 미술 설치작업으로 도시 전체를 현대미술로 포장해 놓고 있었다.

구 시가지에는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예전의 원형감옥은 그 골격을 그대로 이용하여 레베카 호른이 설치 미술작업을 해놓았다.

레베카 호른의 설치미술작업은 다른 미술관에서 보았으나, 작가가 의도했던 감동을 받을 수 없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곳 원형감옥에서의 설치하는 쇠망치의 기계음과 망치질하는 소리에서 관람객들은 죄수들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촛불형태의 조명에서 불운하게 운명을 달리했던 죄수들에 대한 명복을 빌게 만들기도 했다. 작가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이 만든 설치미술작업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행운의 장소였던 것이다.

윈스터의 숲 속을 거닐면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작품은 단 그라함의 유리집이었다. 숲 속에 설치된 유리집에 자연이 그대로 투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자연과 예술의 융화에서 오는 깊이감을 선사하였다. 강가에 이르러서는 그곳에 설치된 편안한 정자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현대미술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빠른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포근히 품어주고 있었다. 또 강가의 다리에 이르니, 영혼도 녹여버릴 것 같은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리다가 끊어지다가 하면서 사람들을 애끓는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초대하고 있었다. 필자는 무작정 강물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감정의 유혹을 받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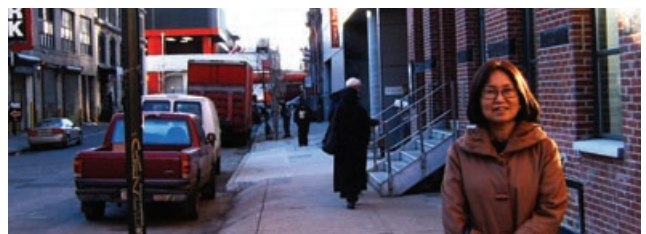
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술의 도시 윈스터, 세계인을 끌어들이다

그렇게 윈스터의 현대미술에 흠뻑 빠지면서 필자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낸 사람은 누구일까?" "이 도시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성숙해 이와 같은 예술의 도시를 만들어 놓았을까?"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들도 현대미술을 이해하기에는 여러 과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1970년대 윈스터에 현대조각가 조지 리키의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현대미술을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시민들에게 심한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10년에 한번 열리는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개최했는데, 이에 시민들은 더욱 강한 항의와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관 관장인 클라우스 부스만은 이러한 항의에 정면 돌파를 택하고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석 달 동안이나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에서 연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와서 예술을 감상하고, 사색할 수 있는 예술의 도시 윈스터를 탄생시켰다. **ARTIST**



장영주 화가

전업작가인 장영주는 한국미술협회, 뉴욕 AGORA GALLERY, 스위스 현대작가회 회원이며 한국, 뉴욕, 취리히, 제네바에서 개인전을 가지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jmindlae@hanmail.net

인생을 맛있게 사는 지혜

김홍신 작가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16회의 강연을 개최하고 있는 '성동혁신아카데미'는 본원과 서울 성동교육청(교육장 윤명숙)이 무한경쟁시대에 교육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혁신 및 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성동혁신아카데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으로 인해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성공교육청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성동혁신아카데미가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인생을 맛있게 사는 지혜"를 주제로 제15회 강연을 해주신 김홍신 작가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강연 제목을 "인생을 맛있게 사는 지혜"로 정한 이유가 있다. 이번 여름에 모기가 의외로 적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을이 오면서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수면을 방해한 경험들이 많을 것이다. 이 때 사람들은 화를 낸다. 그래서 모기향을 피우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 모기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왜 하찮은 모기 따위에 화를 내는 것일까? 만약 모기가 잠자리만큼 컸다면 언제든 잡을 수 있어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모기가 보이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슴속, 마음속, 생각속을 들여다봐라. 만약 마음속을 거울로 볼 수 있으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 높여야

사람이 자신의 값을 종이에 크게 써서 목에 걸고 다닌다면 우리는 얼굴과 가격 중 무엇을 먼저 보게 될까? 물론 가격부터 볼 것이다. 사람의 가격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통사고만 나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값은 모르면서도 상대방의 값을 안다. 다른 사람도 지금 여러분들의 값을 매기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 값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값은 사회적 가격과 정신적 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열등감이다. 텔

런트처럼 몸매 좋고 인물 좋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지 물어보면 몸매와 얼굴이라고 한다. 그들은 외모의 열등감이 가장 크다. 얼굴과 몸매로 먹고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열등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연상해보는 것이다. 지금 떠올린 그게 바로 열등감이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매길 때 기준은 비슷하다. 인물, 배경, 학력, 집, 돈, 그밖에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로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매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형편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에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것은 영혼으로 인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나 육신의 가치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나 금 하나씩은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런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등 속상한 일이 생기곤 한다. 하지만 75억 세계 인구 중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존엄하고 비싼가?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수도 없이 많지만 여기 있는 사람 하나 하나는 우주에서 단 하나다. 그래서 가장 비싸고 존귀하다. 즉, 내가 존엄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높아진다.

종교를 가진 분들이나 가지지 않았더라도 지옥 가려고 준비하는 분은 없을 것이다. 모두 천당에 가고 싶어한다. 지금 만약 천사가 와서 지옥에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가지 않아야 할 까닭을 떠올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어야 할 존재 가치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는 자신을 발견해야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누구도 왜 사는지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견하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에 사고로 죽을 걸 알면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길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일어났더니 어제보다 행복했는가? 아닐 것이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코와 입을 막고 있어 봐라. 비로소 여러분은 숨을 쉬는 걸 인지했을 것이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기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존엄한 가치는 언제 느낄까? 몸이 아프거나 죽게 생겼거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살아있음이 중요함을 느낀다. 이것을 알고 느끼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려면 첫 번째, 비교법을 피해야한다.

보통 우리는 나보다 나은 것과 비교를 한다. 젊어서는 지금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고 결혼했는데, 살다보니 밖에서 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헤어질까' 하는 생각도 간

혹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서 6개월 정도만 살아보면 마찬가지로 알게 된다. 인간은 한 집에 살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 그러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부, 자녀, 재산 등 비교 안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 80년 초중반 주간지 월간지 등에서 함께 여행을 하거나 데이트하고 싶은 연예인들을 조사해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한동안 내가 1등을 했다. 그러자 아내의 친구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넌 좋겠다. 그런 남자랑 살아서"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가 "어휴, 살아봐라.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라고 했다.

여러분, 밖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장점만 보여주려 노력하는 관계이다. 사실 3년 반전에 아내가 먼저 가서 혼자 살고 있다. 아내가 살아있을 무렵, 방송할 때 보조 MC로 텔런트나 성우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오는 것을 보다가 집에 돌아가 화장하지 않은 아내를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인간인지라 '참 너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게 바로 인간이다. 안 하면 바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가 없으니 갑갑한 게 정말 많다. 빈자리는 굉장히 존엄한 자리이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빈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법을 잊어야 한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예쁜 것이 행복일까? 행복은 바로 옆에 있고 작고 남이 보면 보잘 것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평소에 행복이 먼 곳에 있고 웅장하고 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속물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자들이 남자와 식사하면서 상추쌈을 먹을 때, 절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지 않는다. 조그맣게 싸서 예쁘게 먹는 것이 보통의 여자들이다. 그런 여자들이지만 과연 집에서도 그렇게 할까? 그냥 편하게 먹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남자 앞에서 하품할 때도 절대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집안에서 그냥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연현상이라고만 생각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옆에 있다.

두 번째, 행복하려면 행복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아이가 대학갈 때까지, 더 큰 아파트를 살 때까지, 자가용을 살 때까지, 진급할 때까지, 출세할 때까지, 돈이 더 모일 때까지 미루곤 한다. 내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살아 계시는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평균 수명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70대 초반이다. 아직 남은 삶이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가만있어도 하루 최소 2천여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더 많이 생긴다. 지금 미운 사람을 떠올려봐라. 그리고 그가 죽는 상상, 혹은 그를 죽이는 상상을 해봐라. 하지만 그는 죽지

김홍신 작가

1947년 생으로 건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75년 현대문학에 소설 '물살'로 등단한 후 '인간시장' '우리들의 건달신부' '초한지' '김홍신의 대발해' 등 많은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민족화해협력국민연합회 집행위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평화재단 이사, 건국대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않는다. 오히려 내가 죽는다. 미워하는 순간부터 암세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우리는 생각없이 미워했다. 누군가를 1분 사랑하고, 1분 예뻐하면 그 사람은 1분 예수, 1분 붓다가 된다. 누군가를 10분 미워하고, 10분 증오하면 그 사람은 10분 악귀, 10분 악마가 된다. 그렇다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악쓰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냥 잊어야 한다.

그리고 내 영혼의 모양을 생각해야한다.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지긋이 눈을 감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내가 남에게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라.

사람이 건강하려면 먼저 밥을 거꾸로 먹어야 한다. 과일, 야채, 콩, 두부 등을 먼저 먹고 마지막에 곡류를 먹어야 한다. 사람은 몸이 필요한 것보다 언제나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인간의 DNA는 굵는 것에 관해서는 익숙해지지만 배부른 것에 관해서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줄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다. 운동량이 적어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내장기관이 힘을 받는다. 세 번째는 명상을 5분 정도 해야 한다. 자신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야 몸과 마음이 좋아진다. 그러니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라. 다만 도덕적으로 결함이 생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인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만 빼고 전부 다하는 것이 좋다.

1회용 휴지를 빨고 말려서 또 쓰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영혼도 지금의 모습과 영혼이 마지막이다. 1회용 휴지와 같다. 한번 쓰고 버린다. 그러므로 아끼는 것은 좋지 않다.

'좋아. 내가 돈을 모아서 살아봤다가 정년퇴직하고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을 할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절대 안 가게 된다. 나 또한 젊어서 이른바 유명세를 타는 덕에 해외의 많은 곳을 다녀봤다. 그때는 20시간씩 기차를 타고 피곤함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KTX 타고 지방에 다녀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라.

세 번째, 행복하려면 소유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안경, 구두는 누구의 것인가? 남편, 아내, 자식, 집, 통장 등 모두 다 내 것인가? 과거 결혼 전 데이트 할 때는 '우리 죽을 때도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약속했지만 막상 죽을 때 함께 가자고 하면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 내 것은 오직 내 몸과 내 영혼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잘 사용해야할 존재일 뿐이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는데, 관찮은 옷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가격을 보니 100만원이다. 비싼 가격에 살지 말지 남편을 떠올리며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한국 남성들은 돈 버느라 고생해서인지 아내가 옷을 사면 "얼마 줬나?"며 화부터 낸다.

그런데 그 옷을 안 사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잘 잤다면 상관없는데, 잠자리에 들어서도 눈에 가물거리는 사람은 비교적 다름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또 그동안 모은 돈의 절반을 병원에 갖다 준다. 그렇다고 그 옷을 사고 집에 가서 "세일해서 20만원에 샀어"라고 말한 뒤 80만원을 생활비에서 떼어

내는 사람도 일찍 죽는다. 병원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누가 오래 살까? 그냥 그 옷을 사고 나서 가격표를 자르고 120만원에 샀다고 말한 뒤 20만원을 떼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남은 20만원으로 친구 불러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남편 넥타이도 사고, 화장품도 사라. 당대에 번 돈은 다 쓰고 갈 생각으로 재미있게 사는 것을 추천한다. 이 말을 믿지 않는 분은 반드시 후회한다. 소유의 관점을 바꿔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만 잘 사용해야 할 존재이다.

네 번째, 행복하려면 육신과 영혼이 함께 부지런해야 한다.

몸은 영혼을 따른다. 목구멍은 하나인데 물을 마시면 위장으로 가고, 숨을 쉬면 공기가 기관지로 가는 이유는 마시려고 생각하는 순간 뇌에서 명령해서 물은 위장으로 공기는 기관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뭔가를 잘못 먹었을 때 재채기를 하는 것은 잘못 들어간 것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이자 뇌파이다. 그걸 알았다면 육신만 부지런하면 된다. 생각을 바꾸면 부지런해진다.

골퍼와 캐디는 라운딩하는 동안 걷는 거리가 비슷하다. 골퍼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걷는다. 그런데 캐디는 병이 들고 골퍼는 건강해진다. 골퍼는 걷는 것을 스포츠라고 생각했고, 캐디는 노동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캐디가 '남들은 돈을 내고 운동하는데 나는 받고 하잖아?'라고 생각하면 뇌파가 노동을 스포츠로 만든다.

부두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몸이 좋다. 그러나 밤에 술 한 잔 안 하면 잠을 못 자고 끄떡대는 분들이 많다. 스포츠가 아니고 노동이어서 그렇다. 부부간에 마음이 상해서 각방을 쓰고 서로 미워하는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면 이게 노동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몸을 못살게 군다. 노동은 세포 자체가 싫어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저항이 생긴다. 노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 반면, 서로 간에 좋은 일이 있고 기분도 좋은 상태라면 설거지를 할 때 뇌파의 명령어가 노동을 스포츠로 만든다.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혼이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연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한 정거장은 걸어간다고 가정하자. 가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그때 누가 나에게 청혼할 때 그 사람한테 갔으면 지금쯤 기사 두고 편하게 갔을텐데' 등의 생각을 하면서 걷는다면 노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 이걸 운동이야'라고 생각하며 걷는다면 스포츠가 될 것이다. 마음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발모제를 개발해 광고를 했다. 하지만 제품은 잘 팔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 상품을 팔아주겠다고 했다. 그는 신문에 광고를 냈고,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그 광고의 카피는 '이 약은 손가락으로 바르지 마시오. 손가락에 털이 날 염려가 있습니다'였다. 타성을 뒤집어준 것이다. 여러분 또한 타성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꿔야만 한다. 

2008년 희망의 새해를 맞으면서

| 발행인편지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2월 22일 자정이 가까울 무렵 중앙일보 전영기 정치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 이른바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시된다는 내용이였다. 전영기 부장은 자못 흥분된 어조로 "장 회장님의 도움이 급히 필요합니다. 기자가 직접 접촉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니 이경숙 총장과 가깝게 지내시는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며 간청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통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이 총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런저런 인사말을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수락할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답변은 아직 정식으로 연락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2008년 8월까지인 숙대 총장 자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숙대 총장으로 취임한지 12년이 지난 2006년 2월, 숙대 창학 100주년을 맞아 21세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의 10%를 숙대에서 배출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집권에 대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4선 선거에 임했던 그였다. 더욱이 총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 4년이 아닌 2년 6개월의 임기를 정한 것이 2008년 8월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치사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장직 수락은 매우 힘든 선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12월 25일 성탄절의 가장 큰 뉴스는 이경숙 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그 조직이 발표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희망찬 출현이 예감된 일이다.

이경숙 총장은 미래의 한국사회가 선진화 대대로 향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데, 그 리더십은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필자는 이 총장과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리더십프로그램인 LMI의 EPL(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총장을 비롯한 학처장 등 대학 경영자그룹과 교수 등 10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

EPL프로그램을 마친 모든 참가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인간변화의 체험을 하고 있어 숙대가 미래대학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리라는 예감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이명박정부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LMI 리더십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애써온 보람을 찾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원의 원장으로 6년 전에 취임한 양병무 원장이 직접 EPL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이 총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동, 숙대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와 CEO총장의 감동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저술하여 신년 초에 출간할 예정이다.


양병무 원장은 취임 이래 <감자탕교회이야기> (주식회사 장성군) 등 이색적인 베스트셀러로 우리 연구원이 한국역사에 어떤 일을 해온 기관인가를 효과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새해에 출간될 책 또한 하나의 베

스트셀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식회사 장성군>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장성군이 일약 최고로 성공한 행정기관으로 부상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담았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책을 읽지 않는 우리사회에 독서 열기를 뜨겁게 해준 화제작이 됐다. 화제의 인물이 된 김홍식 전 장성군수는 퇴임 후에도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과 단체의 최고 인기강사로 초청 받으면서 연구원의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업적과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우리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큰 몫을 해주고 있어 고마운 마음 그지 없다.

필자는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후 여러 가지 구상 중에서 특히 인간개발영자연구회에 매진하면서 이른바 3김씨를 비롯한 정치계 지도자, 기업 지도자, 학계 지도자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교육 등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초청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의 학습과 대화의 광장을 발전시켜왔다. "성공이란 가치있는 목표를 지향한 중단없는 전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거니와 인간개발영자연구회가 오늘에 이르면서 지난 33년간 한 회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온 결과 변화와 혁신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아카데미, 국군혁신아카데미로 발전하는 등 연구원이 우리사회에 잔잔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침형 학습자와 미래형 경제지도자를 육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CEO경제인에서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짐작되어진 여러 가지 오해와 장애물을 뒤로하고 미래 지도자의 비전과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한국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2008년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는 대희망의 해이다. 지난 십 수년간 군사정부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가운데 왜곡됐던 경제성장의 길이 경제대통령으로 자인하는 이명박정부와 함께 새로운 성장의 고동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느낌을 준다. 2008년 새해에는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정부와 함께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독자, 회원 기업인 여러분들도 인간개발의 뜻을 달고 희망찬 미래의 바다로 나아갔으면 한다. 



내 인생의 위키노믹스

- NBO(Networking By Objectives)

김찬배 C-TECH연구소 소장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작은 금광회사인 골드코프 주식회사(Goldcorp Inc)는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광산의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일 만큼 경영상태가 최악이었다. 새로운 금광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골드코프사의 CEO인 롬 맥이웬은 리눅스의 오픈 소스 전략의 성공에 힌트를 얻어 "골드코프 직원들이 레드 레이크 광산에서 금을 찾을 수 없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2000년 3월, '골드코프 챌린지(Goldcorp Challenge)' 콘테스트를 개최하면서 1948년부터 축적된 지질조사 데이터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모두 공개했다. 회사의 중대한 기밀사항이어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다. 금 170톤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총 57만5000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이 소식은 급속하게 웹을 통해 전파되어 나갔고 전 세계 50여개 국가의 지질학자들과 수학자, 컨설턴트, 대학원생들이 참가하여 50여년을 헤매도 찾지 못했던 금광 후보지를 110곳이나 찾아냈다. 그리고 220톤의 금을 발견했다. 1억 달러 정도의 저조한 실적에 불과하던 회사는 90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기록하면서 거물회사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사례는 돈 탭스코트와 앤서니 윌리엄스가 공저한 <위키노믹스(Wikinomics)>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다. 위키노믹스는 네티즌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내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Wikipedia와 Economics의 합성어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대규모협업(mass collaboration)을 통해 사회의 모든 제도를 바꾸어 버리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기업과 개인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교육을 통해 세뇌되어 왔다. 그래서 성공의 주체는 '나'라고 생각하고 현재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성공하려면 일과 더불어 네트워크에 투자

<포지셔닝(Positioning)>의 저자인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는 개인 삶의 셀프마케팅을 다룬 <마이 포지셔닝(My Positioning)>이라는 책에서 경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말을 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경주에서 성공으로 인도하여 줄 11가지 성공마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근로마(The Hard-Work Horse)의 성공확률은 1/100이지만 타인마(The Other-Person Horse) 즉, 타인의 협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확률은 1/3이라고 한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잭 트라우트와 알 리스는 반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지내다가 권총으로 자살하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보낸 삶에 빗대어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 고흐처럼 당신의 작품 활동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라. 그러나 창조적이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시간의 절반만 당신의 작품 활동에 할애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파는 일에 할애하라"고 충고한다. 이들의 충고는 '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일단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나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일을 열심히 하되 네트워크에 투자하라'는 충고로 들린다.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나 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트워크에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와 자원, 그리고 해답이 있다. 내가 경험한 것에 남의 경험이 더해지면 무궁무진한 가치들이 발견되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전략적 네트워킹 접근 NBO

많은 직장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며 언젠가는 현재의 직장을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현재의 직장은 미래의 직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래의 직업을 줄까? 그것은 바로 네트워크이다. 개인의 삶에도 위키노믹스가 필요하다. 즉, 골드코프사의 롬 맥이웬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답이 있다'는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성공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 주는 것이다. 네트워킹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능력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다고 자부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다. 무언가 네트워크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제는 네트워크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NBO(Networking By Objectives)가 태동한 이유이다. NBO(목표에 의한 네트워크)는 '비즈니스나 일상생활에서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인물(Key Man)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이고 의도적인 네트워크 구축활동'으로 정의된다.

현재의 인간관계를 청산하거나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키맨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권고이다. 내가 실패하면 현재 편안하게 만나는 사람도 서서히 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이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성공해야만 한다. NBO는 바로 지속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지혜의 도구이자 전략이다.

NBO의 성공을 위해서는 'OK 사고방식' 즉, '목표 그리고 키맨(Objectives & Key Man)' 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먼저 목표를 점검한 다음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 그를 만나 교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키맨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핵심정보와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해답은 외부 네트워크에 있다


NBO의 성공모델로 요들송의 개척자이자 대가인 김홍철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요들송을 듣고, 배우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가르쳐줄 선생님이나 교재, 테이프, 악보를 구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65년, 그는 용기를 내어 스위스의 6개 신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요들을 배우고 싶는데 책이나 악보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6개 신문사 중 '타게스-안자이거(Tages-Anzeiger)'는 "자주 듣고 따라해 보라"는 편지와 함께 악보와 테이프를 보내 주었다.

그로부터 1년 뒤, 신문사에서 다시 편지가 왔다. 요들을 부를 줄 알면 테

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따라 부른 것을 녹음해서 보냈는데 그 신문사는 "동양인 최초로 한국의 김이 요들을 부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이 테이프는 다시 라디오의 전파를 타고 스위스 전국에 퍼져 나갔다. 동양의 변방에 불과하던 한국의 소년 김홍철은 이렇게 해서 스위스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967년 초청장이 도착했는데, 1968년 타게스-안자이거 창립기념일에 특별게스트로 초청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김홍철은 요들의 본고장인 스위스에서 동양인 최초로 요들을 연주하는 주인공이 된다. 스위스 관광청은 그의 재능에 주목하여 6개월간 스위스에 머무르며 요들 전문가들로부터 요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스위스TV에도 출연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물론 체류 비용도 스위스 관광청이 모두 부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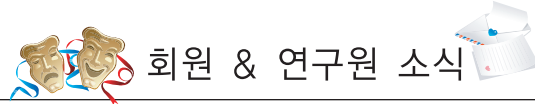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했던 소년이 그것도 미수교국으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던 시절에 편지를 보낸 용기가 매우 감동적이다. 소년 김홍철은 요들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를 도와줄 키맨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거절당할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외부 네트워크로 시선을 돌려 보라. 그곳에는 분명 해답이 있을 것이다. NBO는 개인 삶의 위키노믹스를 위한 신성공전략이다. 



김찬배 소장

1961년 생으로 인하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원에서 경력성공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성공네트워크의 실천적 개념인 'NBO'이론을 창안했으며, 엑스퍼트컨설팅과 Achieve Korea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다. 저서로 '키맨 네트워크', '변화와 혁신의 원칙' 등이 있다. changetech@empal.com



회원 소식

• **코리아나미술관(유상욱 관장)**은 개관 4주년을 기념하여 소장품 특별전으로 <소탈한 文氣 심향 박승무>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리아나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심향 작품의 백미인 설경을 비롯하여 사계절의 여운을 담은 산수화와 화조도 40여점을 선보인다.

- 전시기간 : 2007년 12월 13일(목) ~ 2008년 1월 26일(토)
- 장소 : 코리아나미술관(TEL.02-547-9177)

• **LG CNS(신재철 대표)**는 자본금 50억원을 100% 출자한 컨택센터 전문 기업 '유세스파트너스(Ucess Partners)'를 설립하고 1월 1일부터 컨택센터(Contact Center) 관련 구축·운영·건설 등의 사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LG CNS 충청지역 주재 직원들은 지난 12월 15일 태안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유출된 기름 제거 작업을 펼쳤다.

• 충북 단양군의 대표적 기업인 **한일시멘트(허기호 대표이사 사장)**가 단양군 관광명소를 테마로 엮은 홍보달력 2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국내 재무설계 전문가(FP) 모임인 **한국FP협회(윤병철 회장)**가 지난달 24일~2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FP 콘퍼런스 2007 행사를 개최하였다.

• **(주)금천코퍼레이션(강연구 대표이사)**은 지난달 14일~18일까지 '2007대한민국 명장전'에 참가했다. 이번 명장전시회에서는 금천코퍼레이션의 상임고문 김명만 명장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급 신사화, 숙녀화, 캐주얼화 및 보석 가공품, 귀금속 공예품, 도자기, 칠기, 목공예, 자수, 양복, 한복 등 귀한 명장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성도GL(주) 김상래 사장**은 2007 한국 메세나대회 심포지엄에서 '문화경



영을 위한 문화투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6일에는 중소기업청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07대한민국 컨설팅 혁신대전'에서 '사회책임경영 부분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

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성도GL의 사명서에 있는 세 번째 항목인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Society Contribution)의 이념을 평소 잘 추진하며,

문화경영과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천한 김상래 사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사회책임경영 부분이 올해 처음 신설되어, 첫 번째 수상이었는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지난 12월 11일,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 및 시상식'에서 신지식인 대상에 **김서기 (주)태창가족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가정분야에서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두상달 칠성산업(주) 사장**이 수상하였다.

• **기업은행 유희태 부행장 부부**가 지난 12월 11일, 환경재단에서 개최한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100인에는 '배우 전도연, 프로골퍼 최경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미국 웰스트리트저널(WSJ), 광화문글판 등이며, 환경재단은 이들이 '남다른 헌신과 도전, 변화를 통해 한 해 동안 세상에 소중한 빛이 되어준 인물들'이라고 소개하였다.

• **우리은행 박해춘 은행장**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난 12월 18일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 수도권 최대 복수중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엠(이민주 회장)**은 인터넷전화(VoIP) 지능망과 양방향TV를 결합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TV전화서비스를 지난 12월 17일부터 상용화하였다.

• 명사와 함께하는 장터 사진 작품전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윤병철 한국FP협회 회장**, 강지원 변호사,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연극배우 박정자 씨 등 각계 유명인사 27명이 참여하여 지난 12월 21일~30일까지 인사동 선화랑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식회사 유섬	김영덕 회장	1월 1일
점보실업	오성호 대표	1월 3일
신일금속센터(주)	김종업 사장	1월 8일
(주)E&C정보기술	방기봉 회장	1월 8일
(주)평안산업	곽창근 대표이사	1월 9일
(주)실버텍스	정만우 대표	1월 21일
나경상사(주)	이승우 회장	1월 23일
청미원(주)	윤동노 대표이사	1월 25일
(주)광인기업	김용희 회장	1월 30일

신규회원



이원태 금호고속 대표이사 사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
- 전 화 : 02-530-6101 · 팩 스 : 02-530-6101
- 업 종 : 운수/고속버스



신성옥 SF수정부부차과 원장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아일렉스 3층
- 전 화 : 02-782-2822
- 추천인 : 장찬기 (복)해동재단 이사장

소모임소식

- **신년하례 다락회 모임(회장 박세직 / 총무 우창욱)**은 아래와 같이 "부부동반 신년 하례 모임"으로 갖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전화로 알려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일시 : 2008년 1월 8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서울클럽 (장충동02-2238-6493, 2238-7666)
 - 문의처 : 부총무 이 종 원 (011-306-8587)

연구원 소식

- **인간개발연구원 공동주관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CEO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본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여성 HRD센터와 여성신문사가 공동주관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현황과 이슈를 고찰하고 향후 비전과 전망을 모색할 목적으로 지난 12월 21일 롯데호텔 에머랄드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자체 소식

- **창원시, 복지 행정 ' 으뜸'**
경남 창원시는 정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각종 복지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잇따라 선정되는 등 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뒀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07년 보육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



정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복지종합평가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9개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800.5점을 받아 전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 장성군 이청 군수 취임, 갈등을 극복하고 장성 재창조를 위해 화합

장성군은 지난 12월 21일, 군민회관에서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대 이청 군수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은 그동안 선거로 인한 갈등과 오해를 화합으로 승화시켜 중단 없는 장성 재창조를 위해 군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서 치러졌다. 신임 이청 군수는 유두석 전 군수의 부인으로 유전 군수가 이루어 놓았던 국가개발촉진 시범사업 등 장성의 미래를 좌우할 국책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군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남, 전북 장수 등 최우수지자체 뽑혀

행자부 교부세 10~8억 지원... 전북도 2등급 올라

인천, 전남,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2006년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또 전북도는 C등급에서 A등급으로, 경남 마산시, 경기 안산시, 경북 울진군, 인천 연수구는 E등급에서 A등급으로 각각 최하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뛰어올랐다. 반면 부산 기장군,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재정진단단체로 지정됐으며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 진주시, 따뜻한 겨울나기 '진주시장의 선물' 전달



진주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세대에 연탄 25,000장, 경로당 유류대 추가지원, 각 시설 김장 나누어 주기 등을 통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배품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 125세대에 연탄 200장씩 25,000장과 400여 개 경로당에 유류 대 60,000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영석 진주시장은 26일 옥봉동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솜이불 한 채와 연탄 리어카를 끌고 직접 연탄을 전달하여 어려운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위로 격려했다.

• **성동교육청, '사랑과 감동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여행' 열려**



서울 성동구 성동교육청에서 열린 '사랑과 감동이 흐르는 클래식 음악여행'에 참석한 중학생들이 윤용운 지휘자의 연주곡에 대한 해설을 듣고 있다. 성동교육청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관내 중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까지 열리며, 연주는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챔버앙상블이 맡는다. 한편 연주에 앞서 연주곡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 우리말공부방 수료식**



경북 상주시는 12월 13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이주여성 가족과 지도강사, 여성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하반기 결혼이주여성

우리말공부방 수료식을 개최했다.

• **조달청-김제시, 조달서비스 MOU 체결**



조달청은 12월 12일 전북 김제시청에서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합의했다. 김제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10%를 할인 받는 것을 비롯해 각종 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신속한 전담서비스 등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시는 조달 수수료 할인 및 원가계산 등 조달 전문성 등을 통해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각종 청탁과 민원, 분쟁 등으로부터 벗어나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BETTER PEOPLE BETTER WORLD"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사진자료를 보내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과장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2-2203-3500 · 팩 스 : 2203-1974

회원가입안내

• **회원 자격은**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별도첨부)
회비 납입 (연회비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국내회원**

개인회원 : 年1,000,000원 (1인)
법인회원 : 年3,000,000원 (3인~5인)
특별회원 : 年5,000,000원 (6인이상)

• **연회비 납입방법**

하나은행 : 102-910003-99904
예금주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꿈꾸는 LMI 리더 여러분
2008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속에 소중한 꿈을 생생하게 그리며
간절히 바라고, 진정으로 믿고,
그 꿈과 목표를 매일 매일 열정적으로 추구하시어,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고, 금년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LMI와 함께 해 주신 꿈꾸는 리더- 당신은
저희들의 행운입니다.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함께 꿈의 씨앗을 키워내는 이웃입니다.

당신의 푸른 꿈을 사랑합니다.

새해 아침에
한국엘엠아이 가족이 함께 인사드립니다.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송년의 밤 각계 인사 200여명 참가한 가운데 교류의 장 열어



인간개발연구원은 변함없는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07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행사를 지난 12월 26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로 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회원들과 소중한 가족들을 모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사들과 한자리에 어울려 교류의 시간을 갖고 한해의 노고와 열정에 서로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성우 배한성씨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오프닝공연으로 비올라 피아노 협연이 이어졌다. 이어서 준비된 웃음요가로 건강관리와 가정문제를 풀어보는 김영식 한국 웃음요가연구소 소장의 미니강연과 비보이들의 현란한 댄스페스티벌은 참가자들의 얼굴은 물론 마음까지 시원한 웃음으로 풀어주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오경근 원장의 인물사진전이 열렸으며, 행사 동안 참가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 사진으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송년의 밤 행사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KXHD)**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 dal2020@khd.or.kr

리셉션

오프닝

오프닝공연

미니강연



2007 인간개발연구원



2007.12. 26



비보이공연

경품추첨



송년의 밤 후원과 협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병호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삼성Yepp MP3 2대
- 김기환 (주)나라식품 사장 - 행사만찬용 와인 60병
- 김상희 (주)웰코스 회장 - 남성용화장품 20세트
- 김영철 지원메니아 - 헬로키티 종합선물세트 5개
- 김익영 도예작가 - 도자기작품 1점
- 두상달 칠성산업(주) 사장 - 울릉 심층수 소금 4세트
-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 - 포켓용수첩, 탁상용달력 각 200개
-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 2008년도 벽걸이달력 200개
- 박용팔 전능IT(주) 회장 - 복분자와인 20병
- 손경식 흥익삼경개명원 원장 - 휘호 1점
- 양종관 (주)자유아이종합상사 회장 - 금반지 2개
- 오경근 오경근스튜디오 원장 - 가족사진촬영권 1매
- 유상옥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녹두클렌징화장품 10세트
- 유종하 사이버MBA 회장 - 사이버MBA 온라인수강권 2매
- 윤건우 아디아스 회장 - 고급버단
- 윤용자 바이오큐틴 원장 - 피부관리권 5회 이용권
- 이승남 베스트클리닉 원장 - 엔도레이저지방성형시술권
- 이심 (주)주택문화사 회장 - 야생화 주택테마조경 5권, 노년시대신문
- 이원기 원풍물산(주) 회장 - 고급신사정장 교환권
- 이재욱 중앙파이낸스(주) 사장 - 10만원권 구두티켓 2매
- 이창규 (주)워커힐 W호텔 상무 - W호텔 숙박권 1매
- 이충희 (주)듀오 사장 - 에프로 핸드백 1개, 넥타이 3개
- 장경작 (주)롯데호텔 사장 - 롯데호텔 신관숙박권 1매
- 장찬기 인천실버타운 회장 - 2008년도 벽걸이달력 250부
- 최우영 성원개발(주) 사장 - 디지털자동혈압계 2대
- 최일묵 무크투어 대표 - 제주왕복항공권 2매, 롯데제주호텔 2박3일 숙박권
- 홍승국 에버그린MST(주) 사장 - 남성용시계세트(만보기, 칼로리측정벨트) 10개
- SK네트웍스 와인사업팀 - 고급와인 12병

★ 후원금

- 가갑손 청주백화점 회장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
- 김정배 (주)수성 사장
-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 박성훈 (주)모간 사장
- 송언기 (주)태창플랜트
- 심대섭 명동이류 회장
- 오성호 점보실업 사장원
- 유한김벌리(주)
- 윤영상 (주)다산 회장
- 이 심 (주)주택문화사 회장
- 이용국 신원헬트공업(주) 회장
- 인간개발연구원 이종그룹 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
- 인간개발연구원 화목회 회장 황석희 / 총무 김창호
- 인간개발연구원 YCF 회장 최우영 / 총무 황진수
- 장찬기 인천실버타운 회장
- 정창현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사장
- 조옥환 (주)삼우EPI 대표
-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
- 홍인표 디비아이(주) 대표

투자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아 성공적 투자 위해서는 끊임없는 단련 필요



이찬일 서울에셋투자자문 사장

▣ 2008년 주식시장에 대하여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중국의 긴축정책, 달러화 약세 등 많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어 내년의 경제와 주가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쇼크와 더불어 경제의 기초가 약해지고 있어 금리인하를 처방책으로 내놓았지만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더 이상 금리인하는 한계에 부딪힌 듯하다.

한국 역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주식펀드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과열을 보인 후라 상당기간 주식투자의 매력은 식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특수의 수혜 업종이라며 과도한 시세분출이 있었던 조선,

기계, 철강, 해운업종 등은 물론 지주회사 기업군과 고유가의 반사이익 업종인 태양광 에너지업종 등도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특정종목의 매집형태나 시세 폭은 그 정도가 지나쳐 원성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냉정을 되찾아 맹목적인 투자로 쫓대 없이 분위기에 휩쓸린 자세를 가다듬어 시장의 진정한 가치를 새겨볼 때이다.

▣ 투자판단 기준의 원리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자의 대상물에는 예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투자수익률이다. 상품별, 각국별로 투자처를 선택할 때는 서로간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하여(일본, 인도, 중국 등)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투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가치투자의 시조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발견한 PER(주가수익률)을 응용하는 것이 투자물을 비교판단하기에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봄에 강남 아파트의 경우 PER을 계산해보니,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도 투자수익률이 1~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PER로 보면 50~100배로 너무 비싸 거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워렌 버핏의 경우 2005년 POSCO를 매입할 당시 PER이 4배 수준이었으니(PER의 역수가 투자수익률이다), 평생의 평균 수익률이 21% 정도라는 버핏의 경우에도 POSCO는 훌륭한 투자대상물이었을 것이다. 물론 예상 투자수익률을 내야겠지만 철강경기의 호황과 원화의 환율 절상으로 인한 환차익까지 예상했다면 당연히 투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007년 일본펀드는 투자수익률이 환차손 포함하여 마이너스였는데, 선진국시로서의 PER은 너무 높았고, 최근 중국의 PER도 50배나 되는 등 버블현상을 보이고 있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해외펀드 투자에도 PER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를 축적하는 방법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시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복리로 이자가 붙을 수록 총액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매년 20%씩 복리로 수익을 쌓으면 10년 후에는 6.19배가 되고, 20년 후에는 38.34배가 된다.

인간의 탐욕이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대박을 쫓아다니지만 이런 사람 일수록 쪽박을 차게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손해보는 일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조금하계 빨리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부는 시간의 함수인 셈이기 때문이다.

▣ 군중의 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대중을 거슬러서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기는 매우 어렵다. 군중을 따라가면 외롭지 않고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여기 저기서 주식투자나 펀드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결국 따라하기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무리수가 일어나기까지 한다. 서브프라임 쇼크가 일어난 배경의 일부 역시 금리하락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서민들의 무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빛은 화근이다.

한국 역시 저금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무리한 아파트 투기과열까지 부추겨 깊은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이다. 최근의 주식투자 역시 펀드 열풍을 부추겨 과도한 시세분출이 터무니없이 높은 주가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제 군중들은 무리한 투자로 인해 떨어지는 주가를 속수 무책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한

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단련해야 한다.

▣ 펀드투자에 대해서

최근 들어 펀드열풍이 불고 있다. 펀드투자의 매력이라 한다면 한 종목에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을 줄이는 분산투자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고, 자칭 전문가에게 맡기는 간접투자의 형태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대중의 수고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펀드운용사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한때의 수익률이 타사에 비해 앞섰다고 하여 다음해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또한 지난 4년간의 수익률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은 내내 강세장이었기 때문이다.

수익률은 시장평균수익률에 회귀하는 법칙을 갖고 있다고 한다. 강세장에서 앞서 나간다면 거꾸로 약세장에서는 끌찌를 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펀드 수수료가 훨씬 비싸다고 한다면 투자자는 재산만 날리는 꼴이 되는 셈이다.

최근 유명한 인사이트 펀드를 보면 성격은 헷지펀드이면서 수수료도 터무니없이 높아 이러한 펀드의 허가 배경이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100년 역사의 S&P500 지수가 10% 내외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수수료를 4%대 수준으로 갖고 간다면 투자자와 펀드회사까지의 반반씩 나누는 셈인데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다.

중국펀드를 보면 지난 2년간은 물론 높은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뒤늦게 몰려들어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경제 고도성장기의 개도국 투자는 주가수준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 회계투명성,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도 있는데다 더욱이 주가가 기성을 부리면 유통공급물량이 넘쳐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진다.

중국의 경우 2007년 공급물량을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맞먹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주가수준(PER 40~50)에서 공급이 넘쳐흐르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고도성장기의 개도국(베트남, 러시아 등)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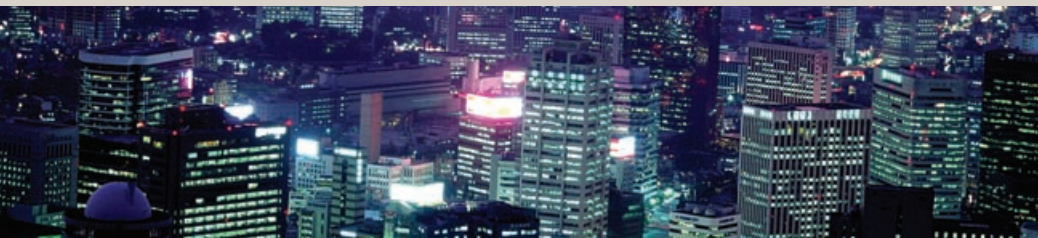
우리가 염두에 둘 일은 펀드에 가입한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 펀드가입 전에는 미리 공부하고 투자국가에 대해 조사하는 숙제를 한 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찬일 사장

1946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71년 한국은행 근무를 시작으로 대 신증권 조사부 차장, 동서증권 조사부장 및 국제부장을 역임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설립이사, 대우투자자문 상무이사, 부 국증권 상무이사를 거쳐 99년부터 서울에셋투자자문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부자가 되는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부유한 노예〉라는 R. 라이시의 책이 있다. 부유한 사람이 노예일 수가 없고, 노예가 부유할 수 없다고 하는 일상적 선입관에 배반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다. 이 책은 부유하기는 하되 노예에 불과해진 성공한 현대인의 패러독스를 묘사한다. 원래의 영어 제목은 '성공의 미래(The Future of Success)'라는 것으로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 책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비슷하다. 병든 사회 속에 사는 개인은 병든 삶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공통점 때문이다. 프롬이 선택의 자유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 책은 부유할수록 더 일을 해야 하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이야기한다.

그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주된 생존방식이 신기술 경쟁으로 특징 지워지면서 부유할수록 그 부를 지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더 빠빠지게 된 패러독스를 예리하게 꼬집는다. 성공을 최선의 가치로 밀어붙이는 현대의 신 경제 질서는 개인으로부터 삶을 차압해간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일에 더 몰두하기 마련이며, 일의 몰두는 삶의 여유를 해체시킨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친구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지역사회의 정도 잃어가게 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을 주된 경쟁으로 하는 (미국식)신경제의 등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의 몰두를 극대화 시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기술혁신의 치열한 경쟁이 주종을 이루는 신 경제 사회에는 두 가지 적응적 인간유형이 있다. 하나가 기크(Geek)이고, 다른 하나가 쉬링크(Shrink)이다. 이 두 인간형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서 지독히 몰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몰두하는 일의 성격이 다를 뿐이다. 기크는 과학, 기술, 예술, 문학, 수학, 컴퓨터, 사이버 게임제작 등등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폭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결국 그런 몰두가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한편 쉬링크는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모으는 일에 몰두


하는데, 그 몰두도 결국 돈에 대한 욕심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갈망하는 것 등등 충족되지 않은 대중의 공통적인 문제를 푸는데 더 관심이 있다. 오늘날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정부나 기업 또는 어떤 단체의 경쟁력은 바로 이 두 인간 유형의 잘 조합된 협동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기크와 쉬링크는 자기의 일에 목숨을 걸 듯 매달린다. 일류대학 입시에 온 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는 고3 입시생처럼 그들은 일에 지독히도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한 기크와 쉬링크는 남이 부러워하는 경제적 보상을 얻어 부자가 되는데, 그 보상으로 삶의 여유를 얻기보다는 그 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해야 한다. 노예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유해질수록 더 바빠진다. 일과 삶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이다.

성공한 기크와 쉬링크는 현대인의 이상이다. 특히 경제적인 부유함이 사람을 여유롭고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기성세대가 이런 젊은이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이 책은 이 점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다. 부유함이 결코 여유로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인 라이시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부유해질수록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삶이 더 여유로워 질 것이라는 케인즈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100년 전보다 수 십 배나 더 부유해진 오늘날 선진국의 중산층들이 일에 매여서, 얼마나 귀중한 삶을 희생당하고 해체당하고 있는지를 섬뜩하게 보여준다.

이 책을 펼쳐서 읽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앞선다. 주제가 심각해서라기보다는 로버트 라이시라는 이 저자의 용기와 결단 때문이다. 일에 파묻혀서 가정과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를 잊고 지내던 그가 어느 날 결단을 내려서 직장에 사표를 낸다. 미국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장관직으로부터 사퇴를 하는 것이다. 그의 사퇴는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한 아버지의 사퇴가 아니라, 일의 몰두를 무한대로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적 경향에 용감하게 반항하는 프로미테우스적 용기라 할 수 있다.

노동 장관으로서 꼭 해야만 할 일을 그는 해낸 것이다. '일에 몰두해서 부자가 되는 삶의 길'을 미화만 해온 오랜 인류의 관행 속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그는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나, 김포↔홍차오(상하이) 매일 운항

이제 상하이도 김포공항에서 떠나세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두 번째 해외노선, 상하이-
아시아나가 홍차오공항 도착으로 상하이 도심까지 1시간 더 빠르게 모십니다.
김포↔홍차오 노선은 역시 아시아나입니다.

문의 및 예약 · 1588-8000 · flyasiana.com

김포

매일 16:15(출발) 17:15(도착) OZ3615

매일 18:15(출발) 21:05(도착) OZ3625

홍차오

※ 상기 운항 시간표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로 가시는 길도
서울로 오시는 길도 1시간 빠르게!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고품격 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식생활 문화기업"

깨끗한 자연 그대로 현대푸드시스템이
당신께 건강한 급식만을 약속합니다.

